

## 영적인 장미의 특별함.

정원의 주인은 오늘 영적 장미인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 온 사방에서 온 영적인 장미인 자녀들이 밥다다 앞에 직접 앉아 있다. 너희 자녀들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앉아있든 (형제자매들 중 일부는 아래층 히스토리홀에 앉아서 멀리를 듣고 있다) 밥다다는 너희 모두를 바로 눈앞에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밥다다는 자녀들의 생각을 듣고 있다. 모든 이가 바바 앞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멀리를 듣기를 원한다. 하지만 비록 일부 자녀들이 아래층 작은 방에 앉아 있긴 하지만 밥다다는 자녀인 너희 모두를 그의 앞에서 보고 있다. 영적인 장미인 너희들 각자의 향기가 밥다다에게 도달하고 있다. 너희 모두 등수대로이지만 지금 이 순간 너희들 모두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이 영적인 향기를 지닌 채 너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에 안정해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영적인 향기가 서틀 리전에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영적인 향기의 특별함을 아느냐? 무엇을 근거로 너희가 이 영적인 향기를 한결같이 꾸준히 지닐 수 있고 또 그것을 멀리 넓게 퍼뜨릴 수 있느냐, 즉 그것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의 주된 기반은 너희들의 영적인 태도다. 영이 영을 보고 있으며 영에게 말하고 있다는 의식을 늘 가져라. 다양한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것은 영들이다. 나는 영이며 지고의 영의 보호의 가리개 아래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 나는 영이다. 나는 지고의 영의 슈리마트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생각 하나도 가질 수 없다. 영인 나의 카라반하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이)는 지고의 영이다. 나는 카라반하르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도구다. 나는 카란하르 (행동하는 자), 그는 카라반하르다. 그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으며, 나는 움직이고 있다. 주님은 이 영인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말, 행위에 관한 모든 지시에 항상 임한다. 그러므로 영인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있으면서 “네, 나의 주님!”이라 한다. 영과 지고의 영은 한결같이 결합되어 있다. 지고의 영은 이 영인 나 없이는 머물 수 없고, 나는 지고의 영 없이는 머물 수 없다. 매 1초1초 지고의 영이 변함없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서는 이 영적인 향기가 난다. 이것이 1등으로 향기로운 영적인 장미들의 특별함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드리시티에는 항상 지고의 영이 합쳐져 있다. 아버지의 눈길에는 그들이 항상 합쳐져 있고 그들의 눈길에는 아버지가 합쳐져 있다. 영적인 장미들은 육신들, 물질세계, 혹은 낡은 물질세계의 어떤 사물이나 사람도 보되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몸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영을 보고 있으며 영에게 말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세계, 신인들의 세계를 끊임없이 시야 안에 담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봉사를 하며 바쁘게 지낸다. 밤이나 낮이나 그들이 해야 할 영적인 봉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영적인 장미들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미 그렇게 했듯이 모든 영이 각자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차지해야 마땅하다는 느낌을 항상 가진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에게서 얻은 그들의 힘으로 도와서 그들이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느낀다. 그들은 누구에게서도 약점이나 결함을 결코 보지 않는다. 그들은 내면에 함양한 힘들과 미덕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협조하는 공여자들이다. 그들은 브라민 가족들과 협조하고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한 대 기부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다 또는 저렇다는 느낌을 결코 갖지 않으며, 남들을 아버지와 대등하게 만들려는 좋은 염원을 항상 지닌다. 더불어 그들은 또 지금 이때 불행하고 가난에 찌들었고 평화롭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한결같이 평화롭고 번영하며 행복의 화신이 되기를 바라는 고귀한 좋은 염원도 역시 품고 있다. 그들은 세계 변화를 조속히 가져와야 한다는 관심을 의식 속에 끊임없이 지니고 있다. 이들이 바로 영적인 장미다.

오늘은 마하라시트라에서 온 자들의 차례다. 마하라시트라 출신들은 “마하 (큰)”라는 단 한 마디만 기억해도 위대해질 수 있다, 즉 그들 모두 1등이 될 수 있다. 마하라시트라에서 온 자들의 목표는 무엇이나? 위대해지는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고 세상도 역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너희가 의식 속에 항상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냐?

카르나타카에서 온 자들은 드라마 (나타크)에서 끊임없이 주인공의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들이다. 너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남들도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안드라 (인도의 한 주)는 어둠을 몰아내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안드라에는 가난이라는 어둠이 심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유형의 빈곤을 없애고 모든 이를 배부르게 만들어줘야 한다. 안드라에서 온 자들은 세상 모든 이를 부유하게 만들어

서 몸에도 가난이 없고, 마음에도 부나 힘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한다. 너희들이 바로 몸, 마음, 부의 가난을 없애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 어둠을 모두 몰아내고 끊임없는 빛을 가져오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안드라의 주민인 너희들은 지식의 태양 마스터들이다.

마드라스는 변함없이 춤추는 데 몰두해있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산스카르들을 조화시키는 춤이 있고, 행복의 춤이 있다, 즉 너희는 몸으로도 역시 춤춘다. 마드(라스)는 또 몰두해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춤에 변함없이 몰입된 상태로 머문다. 너희들 모두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해하느냐? 이제 바바는 모든 이를 다 만났다, 그렇지? 만난다는 것은 받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받지 않았느냐?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눈을 통해서만 만나는 단계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이 위나 저 아래 어디에 앉아 있든 밥다다에게는 너희들 전부가 다 VIP들이다.

### 밥다다가 선생들을 만나심.

밥다다는 도구 봉사자인 너희들이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밥다다는 그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강림하는 것처럼 봉사자인 너희들도 모두 봉사하려고 아래인 여기에 강림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드라마에 따라서 하나의 강림체가 지구에 강림하면 그는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들은 영혼의 힘을 지닌 자들인 반면 너희들은 모두 신의 힘의 화신들이다. 그러므로 만일 강림체인 너희들 모두가 여기에 강림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변화가 아주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가 이 몸을 빌렸으면서도 아무 굴레도 만들지 않고 다만 원할 때 들어왔다 떠남으로써 굴레 없이 자유로이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봉사자인 너희들도 몸의 산스카르나 성질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이 지내야 한다.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원할 때마다 어떤 산스카르라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몸이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유형의 성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내 성질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저의 산스카르와 굴레입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아니다! 아버지처럼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라. 너희들 중 일부는 너희 몸에 굴레가 있는 것은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너희의 몸이 더 이상 너희에게 속하지 않는데, 그 몸이 굴레냐?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굴레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너희가 산 채 죽었거든 너희의 몸은 누구의 것이냐? 너희는 몸, 마음, 부, 세 가지를 모두 바쳤느냐? 아니면 셋 중 둘만 바쳤느냐? 몸과 마음이 너희의 것이 아닐 때 굴레가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이 산스카르들을 여러 생 동안 가져왔고, 이 몸의 카르마의 굴레들을 가졌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한 말을 하는 것이다. 지금 합류시대에 너희들의 옛 생들의 오래된 부채는 정리되었고 너희들은 새로이 모든 것을 시작한다. 이제 너희들의 회계장부는 이미 종료되었다. 너희들은 새로운 장부를 시작했다. 너희의 과거의 낡은 장부는 마무리되었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것을 여전히 정성스럽게 갖고 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마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밥다다가 뭘 보기를 원하는지 이해되느냐?

참으로 많은 수의 강림체들이 나타나면 지구상에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강림체란 저 위에서 내려온 영혼이라는 뜻이다. 먼저 비물질세계의 단계에 안정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리로 내려와라. 아래인 여기서 날아오르지 마라. 어떤 경우든 너희는 본래 지고의 거주지의 주민인 영혼들이며 사토프라단한 영혼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본래의 영원한 형태에 안정해 머물러 있어라. 최종시기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 본래의 영원한 단계에 머물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 자신도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너희들이 도구가 되어준 자들도 역시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들 역시 이런저런 굴레에 묶이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굴레가 없는 영혼, 방금 전에 강림한 이라 여기며 모든 것을 행해라. 그러면 남들도 역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들은 사카르 바바를 보았는데, 그가 뭘 기억했느냐? “아버지와 함께 나도 역시 카르마티트 단계에 있으며, 나는 또 신인 단계의 어린이의 모습으로도 있다.” 그는 의식 속에 변함없이 자기 본래의 영원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따라라! 너희 선생들에게는 너희가 만족하는지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선생인 너희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너희를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너희를 모욕할 수가 없다. 아버지와 똑같이 너희는 도구들이다. 도구라 함은 끊임없이 카란카라반하르의 의식을 지닌 화신이라는 뜻이다. 이 의식은 강력한 의식이다. 나는 카란하르인데, 그러나 카란카라반하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나는 도구이지만 나를 도구로 만들어주신 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에 대한 의식이 없게 해라. 너희들의 입에도, 너희의 마음이나 행위에서도 끊임없이 밥다다의 이름이 있게 해라. 이 수업이 너희들에게 확고하지?

###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1. 너희는 이른 새벽 감로의 시간부터 밤까지 바바가 준 하루 일과표와 고귀한 지시에 따라서, 즉 너희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고 어떻게 걸어야 하며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너희들의 하루 전체를 보내느냐? 이 모든 행위에 대해 너희는 고귀한 지시를 받았다. 너희는 그 고귀한 지시에 따라서 모든 행위를 행하느냐? 너희들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 단계가 높이 유지되도록 어떤 말 한 마디를 계속 의식하며 지내느냐? 관리인이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신탁관리인임을 의식하며 지냄으로써 너희의 단계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관리인으로 행동할 때는 모든 부담이 아버지의 부담이고 너희들은 한결같이 더블 라이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더블 라이트 상태일 때 너희는 높이뛰기를 할 수 있다. 너희 자신을 가정을 가진 이라고 여길 때는 너희 뒤에 꼬리가 끌리고 있으며 모든 부담이 너희의 짐이 된다. 짐을 졌을 때 너희는 높이뛰기를 할 수 없다. 사실 너희는 점점 더 숨이 찬다.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관리인이라 여길 때 너희들의 단계는 한결같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끊임없이 관리인으로 남는 데 대한 고귀한 지시를 너희 의식 안에 항상 간직해라.

2. 자녀인 너희들 모두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첫째 슈리마트가 무엇이냐? 첫째 슈리마트는 너희들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단지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아버지에게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기억하는 단계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동안에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지 않고 평범한 육신의 존재라 여기면서 아버지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의 그 단계를 유지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모아서 조립하려면 그 전에 그것들을 먼저 어울리게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할 때는 너희가 알아졌으므로 그 기억을 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슈리마트를 끊임없이 계속 실천해라. 이것이 너희들의 주된 기반이다. 기반이 약하면 너희는 상승단계를 경험할 수 없다. 한 순간 너희 단계를 오르다가 바로 다음 순간엔 그것이 내려갈 것이다. 건물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금이 가고 그러다 무너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의 토대가 강하지 못하면 마야가 너희를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너희의 토대가 아주 강하도록 늘 확실히 해라. 너희는 쉬워 보이는 일조차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심지어 쉬운 일마저 어려워진다.

3. 너희가 매 사이클마다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영혼이라는 도취감을 끊임없이 느끼느냐? 너희들은 그 영혼들이었고, 그 영혼들이며, 매 사이클마다 그 영혼들이 될 것이다. 지난 사이클의 장면들도 역시 너희의 지각에 그렇게 뚜렷하게 들어가느냐? 오늘은 너희가 브라민들이고, 내일은 신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신인들이었다는 도취감을 느끼느냐? 너희는 “험 소, 소 험” (나는 과거의 나였던 그것이 될 것이다)의 만트라를 한결같이 기억하느냐? 만일 이 도취감을 끊임없이 유지한다면 그 경우 도취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서 마치 온 세상 전체가 망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도취감 속에 머물 때는 낯은 세상을 쉽게 잊을 수 있다. 너희의 단계를 이렇게 경험하느냐? 그러므로 오늘은 너희가 브라민이고 내일이면 신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도취감 속에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봐라. 누군가를 대할 때 너희는 여전히 이 도취감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약간 줄어들느냐? 모든 이가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가 대통령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너희의 지위를 한결같이 기억해라. 이를 통해서 너희는 한결같은 행복과 도취감을 경험할 것이다. 신인이 될 자라는 도취감을 끊임없이 가져라. 현재 너희들은 상투인 브라민들이고, 브라민들은 신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고귀하다! 너희들의 이 도취감을 펼쳐버리려고 마야가 아무리 흔들며 애써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없어야 마땅하다. 마야가 오면 그녀는 먼저 너희를 고립시키려고 애쓴다. 그녀는 먼저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물려서게 만든다. 강도들도 역시 먼저 너희를 따로 떼어놓고 나서 공격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결합되어 있어라. 결코 고립되지 마라. “나와 나의 바바.” 결합되어 있다는 의식 속에 머물러 있어라.

4. 너희들 모두 너희들 자신이 대단히 복이 많다고 여기느냐? 너희들의 행운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너희들은 축복으로 앞자락을 가득히 채우려고 축복의 나라에 도달했다. 세상에 그렇게 복 많은 영혼이 몇이나 되겠느냐? 수백만 중에서 한 손으로 꼽을 만큼, 그 한줌 중에서도 극소수뿐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너희가 들었었고 얘기해왔던 것을 인식하며, 또 너희가 지금 수백만 중 선택된 한 손으로 꼽을 만큼 중에서도 소수인 영혼이라는 것에 항상 행복하게 지내라. 너희는 이 정도의 행복을 느끼느냐? 끊임없이 이 행복 속에서 계속 춤춰라. 내 행운은 얼마나 대단한가!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라. 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더불어 행복해하며 춤춰라. 너희들은 이 노래를 부를 줄 알지 않느냐? 내 행운은 얼마나 대단한가! 나의 바바는 얼마나 경이로운가! 드라마는 얼마나 경이로운가! 끊임없이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라. 너희는 대단히 운이 좋다. 너희 자녀들 각자가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아버지는 항상 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장 사랑스럽고 또 가장 복이 많기도 하다. 너희 자신을 결코 평범하다고 여기지 마라, 너희는 대단히 고귀하다. 신이 너희에게 속하는데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씨앗이 너희에게 속할 때, 나무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한결같은 행복 속에 머물러 있어라. 남들이 너희의 행복을 보면 그들도 역시 행복해하며 춤추기 시작할 것이다.

**축 복:** 너희의 본래 형태와 너희 원래의 집에 대한 자아존중에 안정해 머무는 해방자 마스터가 되어라.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모든 영혼에게는 이런저런 유형의 굴레가 있다. 일부는 몸을 통한 고통에, 다른 일부는 관계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욕구를 통해서, 일부는 슬픔을 일으키는 자기의 성질이나 산스카르를 통한 고통에 영향 받고, 그러므로 그들은 외치며 울부짖는다. 그렇게 평화롭지 못하거나 슬픔을 겪고 있는 영혼들은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것처럼 슬픈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본래의 형태와 너희 원래의 집에 대한 자아존중에 안정해 머물러 있으면서 자비로워져서 해방자 마스터가 되어라.

**슬로건:** 변함없이 흔들림 없고 부동해지기 위해서는 한결같고 안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라.

\*\*\* 음 샐티 O M S H A N T I \*\*\*